6·25때 墜落한 B29搭乘員 11名을 救出

注文島 住民에 榮譽의 메달」을

지난6·25동란중 작전임무를 수행하다가 江華島앞바다 注文島에 추락한 B=29폭격기승무원 一三명중 낙하산으로 내려온 미군 一一명을구출, 목숨을 건진 안전지대로 생환시킨 徐순영씨등 九명에게 30일상오10시 현지注文島에서 駐국방부차관·「브라운」미대사가 참석한가운데 미국훈장과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장지로떠나는 成台永옹의영구…서울시청앞에서>

正義세우려 매를맞았네…

咸台永翁 國民葬嚴修

지난24일 향년 91세로 서거한 전부통령 咸台永옹의 국민장장례식이 30일상오 10시부터 시청앞광장에서 수기도 고시으로 엄숙히진행되었다。

이날 李국회의장·丁총리등 삼부요인및 咸옹의 유족·門人등 각계대표의 헌화와축도、송영(頌詠)、조총이있은다음 해군군악대의 구슬픈 진혼곡이 맑은하늘을 울리는가운데 상오11시20분 식순에따라 장례행렬은 서울시청—鍾路—敦岩동을 거나 議政府장지로 향했다。

<B29탁승원을 구출한 사람들에게 수여된 「메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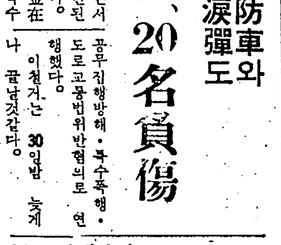
死境무릅쓴 公로 榮譽의 메달

=民間人9名中 두名은被殺·3名은被拉=

美空軍長官으로부터授與

이날수여된 훈장은 미공군장관이주는 「메달」로서 徐순영 孔成奎 朴照遠씨등三명은 살아서 이훈장을 받게되었지만 李용석 朴행원씨등 二명은 공산군에 학살당했고, 鄭운석 유호찬 朴승희 金시유씨등四명은 피의군에 납치되어 그유족들이 대신 상을받았다。

이들에의하여 구출된미공군「피드나」대위등 一一명은 一九五〇년7월12일낮 낙하산으로 注文島에내리자 곧주민들의보호를받고 숨어있다가 六명은 四일후인 16일하오3시 조그만어선을타고나가 고 金山으로돌아가 무사히생환, 본국에 돌아갔는데 생존자들이 미공군성과 영국합대에구조되었고 나머지五명은 역시어선을타고 中共으로 탈출하려다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부딪쳐 되돌아왔다。



<朴照遠씨>

<孔成奎씨>

상을받은

警官등2千名動員

催淚彈과 消防車와

住民과石戰40分、20名負傷

<짧은 『필터』담배 첫선>